# 홍매화 찍으러 가요!

**화엄사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 개최**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촬영 · 출품**



**각황전 홍매화 · 길상암 들매화 촬영대회**
**당선작 4월 1일 화엄사 홈페이지에 발표**
**시상식 4월 3일 오후 1시 화엄사 각황전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지리산 화엄사가 제1회 홍매화 · 들매화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 '천년의 도량에서 매화와 노닐다' 를 개최한다.

각황전 앞 홍매화와 길상암 들매화를 감상만 하기 보다는 코로나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불자, 이웃종교인 등 모든 국민과 함께 '보고 느끼고, 기록하는' 화엄사의 홍매로 공유하고자 마련된 이번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방법은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화엄사 각황전 앞 홍매화와 길상암 들매화를 촬영한 사진을 3월 27일까지 화엄사 홈페이지 '홍매화 축제' 창에서 출품 양식을 따라 출품하면 된다.

촬영은 4인 1조로 30분씩 진행된다. 참가비는 없으며 출품작은 1인 2작품으로 제한한다. 개회식은 3월 21일 오전 10시 홍매화나무 아래 진행된다. 심사일은 3월 30일이며, 당선작은 4월 1일 화엄사 홈페이지와 BBS불교방송 아침저널을 통해 발표한다. 시상식은 4월 3일 오후 1시 화엄사에서 열린다.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는 신라 진흥왕 5년이던 544년 연기대사가 창건했다. 이후 문무왕 10년이던 670년 의상대사가 화엄10찰을 불법 전파의 도량으로 삼으면서 화엄사의 중수가 시작되었다. 고려 시대에 들어서는 네 차례의 중수를 거쳤으나 이후 임진왜란으로 인해 전소되는 안타까운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럼에도 각황전만은 화재를 입지 않아 사찰 창건 유래에서처럼 중국 황제가 깨달음을 얻어 지은 전각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화엄사 각황전은 창건 초기에는 장육전이었다. 조선 숙종 때 각황전을 중건하게 되는데 이때, 각황전 조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계파선사가 지금의 홍매화를 심었다고 전해진다. 각황전 홍매화는 그 빛깔이 여느 홍매화 보다는 짙어 흑매화로도 불리며 장육전의 이름을 딴 장육화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므로 화엄사의 홍매화는 각황전의 역사와 생을 같이했다고 할 수 있다. 각황전과 원통전 사이에 우뚝 선 화엄사의 상징 홍매화는 봄의 전령으로 지리산에서는 최고로 손꼽히는 도량의 신장과도 같은 나무다.

또한 길상암(산내 암자 중, 표지판이 없는 암자)은 구층암에서 약 50m쯤 떨어진 해장죽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면 있는 작은 암자이다. 바로 그곳에 지리산을 대표하는 야생매화가 있는데 이 매화가 바로 천연기념물 제485호로 지정된 수령 450년의 들매화(야생매화)이다.

이번 행사는 '천년도량에서 홍매화와 노닐다.' 라는 주제와 걸맞게 대중이 화합하고, 전 국민이 함께 어울리는 불교의 자비사상을, 촬영 부제인 '매화' '가족' '코로나 예방과 퇴치' '생명' '화합(하모니)을 제시하여 매화꽃이라는 무정물에서 고루 나누고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1회로 개최되는 홍매화 ·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는 쉽고 편리한 사진 출품전이라는 점도 이번 행사의 특징이다.

시상내역은 △화엄대상(교구장스님상) - 1명 팔로모 퀸사이즈침대 1개(500만원) △최우수상(구례군수상) - 1명 (팔로모 토퍼 90만원) △생명상(화엄사신도회장상) - 2명 팔로모 베개(30만원* 2인 = 60만원) △코로나퇴치상(구례군보건소장상)-12명(애플라인드 바람막이 자켓 (100만원) △가족상-10명 자동차 2차사고 예방콜라이프(130만원) △하모니상-10명 화엄사템플스테이 가족 4인 참가권 △매화상-10명 불스원 (40만원) △부상으로 홈페이지 접속 후 작품을 제출한 100명을 선착순으로 선정, 제너시스 BBQ상품권 100매를 증정한다.

수상작들은 홈페이지에 게재함은 물론, 연말에 제작되는 화엄사 캘린더와 다양한 화엄사의 홍보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출품된 사진은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화엄사에 귀속된다. 화엄사는 사진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모든 대중에게 소정의 증정품을 증정한다.

# 정근, 음악이 되다

**일각 스님 기도송 '나마스' 출시**
**정근 · 감상 함께하는 명상음악**
**마음 편안해질 수 있는 정근송**
**"아리랑 같은 한국적 정근송"**




"시방세계 항상 계신 삼보님께 정성 다해 예경 올립니다. 원하오니 이 기도송을 듣는 이는 모든 번뇌 끊어지고 밝은 지혜 자라나서 보리심이 생겨나며 지옥세계 멀리 떠나 삼계고해 벗어나고 깨달음을 이루어 모든 중생 건져지이다"

'기도' 와 '감상' 을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정근송 명상음악' 음반이 나왔다. '일각 스님의 기도송 나마스' (이하 나마스)이다.

'관세음보살' 등 '나마스' 에 실린 3곡(6트랙)의 기도송은 음악적 요소가 없었던 '정근염불' 에 음악을 깔고 칭명소리를 새롭게 작곡하여 선율화한 것으로, 사부대중 모두가 법당에서의 기도는 물론 일상에서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한국적 불교 명상 힐링 '음악' 이라고 할 수 있다. 정근은 선법을 더욱 자라게 하고 악법을 여의기 위한 수행법으로, 이번 나마스 출시는 기도와 수행을 음악으로 확장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수록곡인 '관세음보살' 은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한국전통음악의 '평조(솔라도레미)' 선율로 작곡된 곡이다. 현악기의 화음을 기초로 하여 국악기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한다.

△두 번째 수록곡인 '나무이미타불' 은 단순한 노래 선율에 편곡을 새롭게 입히는 방식으로 작곡했다. 인상주의적 화성법을 사용하면서 풍부한 색채의 반주부를 만들었다. 중모리(12/4박) 풍의 느린 부분과 같은 가락을 빠르게 변주한 중중모리(12/8박)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선율은 홋소리의 메나리 선법(미솔라도레)을 사용했다.

△세 번째 수록곡인 '석가모니불' 은 부처님의 모습을 장엄하게 그려보고자 한 곡으로, 전자음향을 배제하고 소금, 대금, 해금, 가야금, 거문고, 타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어쿠스틱 악기만을 사용했다. 음계적으로는 전통 홋소리에 나타나는 메나리 선법(미솔라도레)을 사용했으며, 리듬은 4박자를 고수했다.

이반 음반의 기획 · 제작은 LMB싱어즈와 제니시불교문화원을 설립해 한국 불교음악 발전에 매진해온 성악가 박성규 씨가 맡았으며, 작곡은 한국음악의 현장연구를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김대성 작곡가가 맡았다. 그리고 음반의 주체자인 일각 스님(석가사 주지)이 전곡의 노래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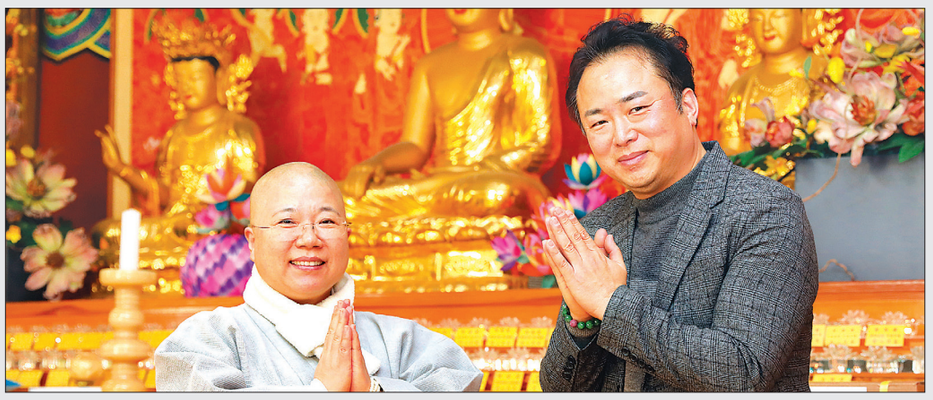
이번 음반은 박성규 씨가 3년 전부터 석가사 합창단의 지휘를 맡으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봄, 10여 년 전부터 한국적 음악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고유한 명상음악을 꿈꿨던 일각 스님의 원력을 박성규 지휘자가 알게 되면서 음반 제작이 본격화됐다.

일각 스님은 "대중들이 듣고 따라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정근송이 있었으면 했는데, 박성규 지휘자님을 만나서 오랜 숙원을 회향할 수 있게 됐습니다"고 했다.

박성규 씨는 "이 음반의 가장 큰 목적은 '정근송의 대중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듣는 이가 평온을 찾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가장 큰 취지인 것이죠.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아리랑' 과 같은 한국적 정서가 담긴 명상 힐링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고 음반의 의미를 설명했다.

약 6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발표된 이번 음반은 우선 일각 스님이 전국의 사찰을 대상으로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이번 음반은 가격이 책정된 정식 음반이지만 이번 음반이 법회 집전은 물론 신도들의 기도용 등 다양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음악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이기도 하다. 박성규 씨는 "이번 나마스의 출시는 궁극적으로 한국 불교음악의 활성화를 위한 모색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음악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통적으로 부를 수 있는 통일된 찬불가를 만들고 그것을 널리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주도적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했다.

박재완 기자



'나마스' 를 전체 기획하고 노래한 일각 스님(좌측)과 기획 · 제작을 맡은 성악가 박성규 씨.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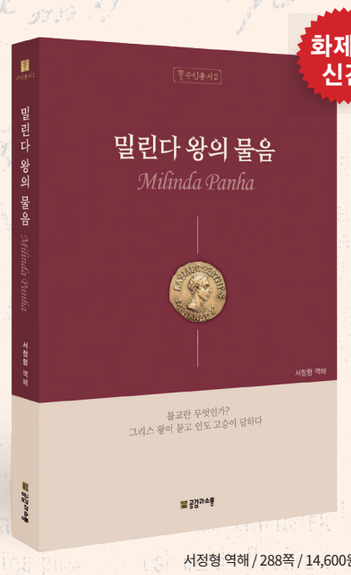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불교란 무엇인가?
그리스 왕이 묻고 인도 고승이 답하다!"




밀린다 왕의 물음

알렉산더의 후예인 그리스 왕 밀린다와
불교에 정통한 인도 고승 나가세나의 주옥 같은 대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유려한 우리말로 풀어쓴
〈밀린다팡하〉역해서!

이 책은 불교에 회의적인 서구인들이 내게 묻는 대부분의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 비구 베살라(Bhikhu Pesala)

〈밀린다 왕의 물음〉이 인도 산문의 위대한 걸작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문학적 견지에서도 어느 나라의 어떤 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리스 데이비즈(T. W. Rhys Davids)

서정형 역해 / 288쪽 / 14,600원


나가세나

밀린다 왕 : 사람의 지혜는 어디에 머뭅니까?
나가세나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밀린다 왕 : 그렇다면 지혜라는 건 없군요.
나가세나 : 바람은 어디에 머뭅니까?
밀린다 왕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나가세나 : 그럼 바람은 없습니까?

서정형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20여 년 불교와 철학개론을 강의했고,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공감과소통 전화 031-942-9472